

## 아마추어 지역 청년 미디어의 사회적 의미\* - 〈반반미디어〉를 중심으로

신지은\*\*

###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부산 반송에서 활동하는 〈반반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마추어 지역 청년 미디어의 문화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아마추어 지역 청년 미디어는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 제작 방식 등에서 전문가, 중앙, 성인 중심의 기존 미디어와 구별된다. 이 새로운 미디어는 객관성과 중립성의 원칙 대신 감정적 소구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미디어 제작 방식 역시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는 것 대신 DIY와 공동 학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디어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치적 논의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타인과의 공통의 문제와 관심사를 발굴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생활 정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미디어를 자신의 일상생활과 감정에 근거한 새로운 공론장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미디어는 느린 속도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속도 전쟁 중인 사회와 스펙터클화 되고 있는 미디어를 반성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주요어: 마을 미디어, 감정 공론장, 생활 정치, 지역, 아마추어

\* 이 과정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gracchus@pusan.ac.kr)

## | 차례 |

1. 들어가며
2. 마을 미디어
3. 생활 정치
4. 느린 속도의 미디어
5. 나가며

### 1. 들어가며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의 <반반미디어> 활동이 알려진 것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반송여중으로 가는 좁은 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등굣길 대책위를 만들고 반송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내 마침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정치적 행동을 사소한 '반항'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고, 구청 등 관련 기관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연설, 피켓시위, 서명, 시의원과 구청장 면담 요구, 라디오와 신문에 문제 알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 이 과정은 <반반미디어>를 통해 자세히 기록되고 알려졌다.<sup>1)</sup>

미디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서울과 전문가에 집중되고 있는 시대에 지역 청년들이 미디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놀랍다. 창립 멤버인 추나리 씨는 “뉴스의 무게는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2015년 청년들이 모여 마을신문을 제작하면서 반반

---

1) “우리에게 길은 없다. 반송여자중학교 등굣길 대책위 활동 다큐멘터리”. 유튜브 <반송스런 청년들>, 2020.02.16.

미디어가 탄생했다고 말한다.<sup>2)</sup>

반송의 청년가치협동조합에서는 청년·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마을 신문 <반반><sup>3)</sup>과 영상으로 된 콘텐츠를 제작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sup>4)</sup> 이를 기반으로 반송여중 등곳길 문제를 알리는 것에서부터, 노동자의 날 선물 증정 행사, 실용 정보 제공, 봉사 활동, 마을 행사 실시간 중계, 청소년들의 교복 만족도 조사, 마을 사람 인터뷰와 마을 맛집 탐방까지, 이들은 자기 지역을 알리는 전파자의 역할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종이 신문을 만들면서 시작한 활동이 지금은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더욱 젊고 더욱 일상적으로 마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반송의 역사를 공부하고 반송 사람들의 관심거리에 주목하면서 마을과 마을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 힘을 배워갔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재밌으려고” 시작한 활동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sup>5)</sup>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사회적 이슈에 따라, 사람들의 ‘지금 여기’의 관심사에 따라 가변적이다. 취재 및 보도의 대표성, 기획과 편집 등에서 미숙한 점도 많다. 이런 이유로 아마추어 미디어 활동

---

2) “2019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 6월 ‘반반미디어’”, 2019.07.07.

3) 마을 신문 <반반>은 마을 소식 취재, 기사 작성, 편집, 디자인, 배부까지 모두 청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반’이라는 이름은 ‘반송에 반하다’의 준말이다. <반반>은 처음에는 1년에 3회 발간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회 발간했다. <반반미디어>는 <반반> 외에도 마을 드라마 <반송, 그곳>, 마을 뉴스 <반반 뉴스>를 제작하며 차츰 영상제작 쪽으로 방향을 넓혀가고 있다(반반미디어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nbanmedia2>.

4) <반반미디어>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5) 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 회장, <반반미디어> 고성운 팀장 인터뷰(2021년 3월 17일, 느티나무 도서관 지하 반반미디어 사무실). 이 인터뷰에서는 언론 및 <반반미디어>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반반미디어>의 역사, 참여자의 특징, 제작 방법, 활동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이 있어 왔고, 비판적이지는 않다 해도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놀이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최근의 청(소)년 미디어 활동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960년대 해적 라디오 방송,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블로그가 출현했을 때도 유사한 반응이 있었다. 전문적인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정규 훈련이나 전문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sup>6)</sup> 반면 대중 혹은 아마추어에 의한 미디어를 기존 미디어의 체계모니에 대한 저항의 징표로, 개인 미디어 제작자를 급진적인 정치 활동가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디어 관습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아마추어 지역 청년 미디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새로운 미디어의 콘텐츠와 제작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제작자들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연구에서 보이는 도구적, 제도적, 구조적인 측면의 접근 대신 문화적 코드와 정동, 감각 등에 주의를 기울여 봄으로써 미디어를 매개로 한 현대의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 마을 미디어

### 1) 당사자 보도

반송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1968년부터

---

6) 한선, 「블로그 이용자의 지역 공론장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 <경남도민일보>의 메타 블로그 '쟁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4), 2012, 366쪽 각주 3.

1975년까지 수정동 산동네, 조선방직 부지, 경부선 철도변에 살던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옮겨오면서 반송에 마을이 처음 형성되었다. 당시 부산시 집단이주정책은 사회기반 시설, 복지시설 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기 싫은 도심 판잣집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시행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반송 인근 고촌마을에 건설하려던 화장장 반대 운동, 실로암 묘지 입구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은 매우 거세었다. 이는 집단이주정책 시행으로 마을이 형성된 이후 15년간 소외당해온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다행히 부산시로부터 사업 백지화 결정을 받아내면서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이때 형성된 집합 행동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후 주민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8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창립되었고, 2005년 '희망을 꽃피우는 지역 공동체, 희망세상'으로 단체명이 변경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sup>7)</sup>

〈반반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런 마을 활동 경험을 했던 부모를 둔 이들이 많다. 반송에서 나고 자란, “반송이 키운” 이들은 지역 미디어 활동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반반미디어〉에서 활동하다가 청년이 되면 〈희망세상〉 회원으로 활동을 이어 나가거나 혹은 청소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7) 2007년 마을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이면서 주민들은 다양한 캠페인, 공모사업 선정, 개인 기부 등을 통해 ‘너티나무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도시철도 개통,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공동 주차장 확충, 시장 현대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반송은 점차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단체의 자생적 활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후 주변에 정관신도시나 고촌마을 아파트 대단지가 생기면서 마을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반송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힘을 모을지 주목해 볼 만하다(신지은, 『해운대인 듯 해운대 아닌 해운대 같은 해운대 반송동 〈희망세상〉』,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BDI, 2016, 113~117쪽); “반송만의 색깔 지키며 좋은 청년공동체로 만들 것”, 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 회장 인터뷰, 국제신문, 2020.01.13. 참고.

8) 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 회장, 〈반반미디어〉 고성운 팀장 인터뷰(2021년 3월 17일, 느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인식할 기회를 가지면서 성장한 반송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자신과 자신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반반미디어>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친구, 이웃, 마을을 위해 만든 위한 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반반미디어> 콘텐츠는 마을 이슈에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마을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들은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않다. 이처럼 탈전문화, 탈자본화, 탈제도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구별해 '대안 미디어'라 부르는데, 이는 콘텐츠 제작, 배급 등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sup>9)</sup>

대안 미디어는 주류언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객관성', '불편부당성'이라는 이념과 다른 방향성을 지향한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을 편견 없이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객관성의 원칙에 도전한다.<sup>10)</sup> 사실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의 경우는 보통 '뉴스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대안 미디어는 사실이 가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보도란 항상 개인적 가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대안 미디어는 주류 언론에는 편견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균형 보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실질적인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주류 언론의 관점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많은 대안 미디어는 "당파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민중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대표하게 되는 운동과 공동체 안에 직접 참

---

타나무 도서관 지하 반반미디어 사무실).

9) Chris Atton, "Alternative Media, the Mundane, and 'Everyday Citizenship'", in Matt Ratto, Megan Boler, *DIY Citizenship*, The MIT Press, 2014, p. 343.

10) Chris Atton, 민인철·반현 옮김, 『일터너티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39, 57쪽.

여하면서 보도”한다.<sup>11)</sup> 이런 식으로 대안 미디어는 주류 미디어와 다른 유형의 지식을 생산해 낸다.<sup>12)</sup>

이처럼 주류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대안 미디어가 등장했는데, 대안 미디어라 해도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 언론인과 엘리트에게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대안 미디어와 구별하기 위해 ‘시민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sup>13)</sup> 시민 미디어에서는 전문가를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는 보통 조연자의 위치로 제한된다.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자신과 마을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마을 미디어, <반반미디어>는 관점에 따라 대안 미디어이기도 하고 시민 미디어이기도 하며 아마추어 미디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반반미디어>에서 관찰자와 피관찰자, 기자(혹은 전문가)와 시민(혹은 아마추어) 사이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자가 마을의 일원으로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일이 자주 있으며, 반송에 이주해 온 전입자의 집을 친구처럼 방문해서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사람들에게도 전입자를 소개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틀로는 결코 포섭할 수 없는 이런 콘텐츠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 없는 사건과 인물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과 연관된 콘텐츠를 직접 다루는 ‘당사자 보도(native reporting)’, 직접 증언, 사적 이야기를 중요하게 간주한다.<sup>14)</sup>

---

11) 같은 책, 53쪽.

12) Chris Atton, James Hamilton, 이효성 옮김, 『대안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78~79쪽. 촘스키나 사이드와 같은 학자들은, 주류 언론인들이 강조하는 객관성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주류 미디어는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보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에는 아랍계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친이스라엘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드러낸다.

13) Chris Atton, 앞의 책, 242쪽. 시민, 시민사회에 대한 단일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만큼 시민미디어에 대해서도 사상적 조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태, 「시민미디어 개념의 다원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2005 참고.

이들은 기자 혹은 콘텐츠 제작자이기 이전에 마을의 일원이다. 즉 이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분리 불가능하다. 심지어 언론인 혹은 미디어 제작자로서의 정체성 보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사를 쓰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드러낸다.

이런 이유에서 <반반미디어>와 같은 미디어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대적 요구는 객관성이나 공정성과 같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덕목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한다. 기성 저널리즘의 과장과 왜곡, 정치적 이슈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나 선정주의, 권위주의 등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하락했고 많은 이들이 가짜뉴스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 미디어가 생산하는 담론과 아마추어 미디어가 생산하는 담론 간에 분명한 위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전문성의 기준에서 볼 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기사를 생산하고 스스로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2) 감정 공론장

전문적 훈련이나 과도한 자본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넘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소통과 매체 제작 수단을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기존의 미디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보도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sup>14)</sup>

14) 이효성, 「대안언론과 관련된 비판이론 및 급진 미디어, 시민의 미디어, 토착민보도 개념에 대한 고찰」,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1, 2011, 66쪽.

15) 물론 인터넷 플랫폼이 선별과 배제를 통해 작동하는 기존의 미디어를 넘어 전적으로 민

그 중 하나가 감성적 소구방식이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기존의 보도 관행은 감성적 소구방식을 배제해 왔지만 최근에는 사회모순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팟캐스트들은 저널리즘 방식을 SNS 환경에 맞게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에 기반하되 감성적 소구력을 동원한 해설과 평론 위주의 저널리즘을 수행한다.”<sup>16)</sup>

〈반반미디어〉 역시 이런 감성적 소구 방식의 특징을 보인다. 〈반반미디어〉가 객관적인 보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지역 청년의 변론영역을 포함하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 느낌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위해 개개인이 목격한 장면,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개인적인 사진, 개인 경험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 의견을 드러내는 주관적 보도, 르포르타주와 포폴리스트 문학 스타일이 결합된 콘텐츠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반반미디어〉는 기존의 저널리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반반미디어〉 제작자들은 마을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들려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처음 미디어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기존의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17)</sup> 그래서 현재 〈반반미디어〉의 상당 부분은 마을의 다양한

---

주적인 미디어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문턱을 제거했다는 주장은 비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누구나’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시대의 이면에는, 문단 안팎의 모든 글쓰기가 상품 생산의 활동이 됨과 함께 비물질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 놓여있다. 게다가 이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정환, 「글쓰기-노동과 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 『문학과사회』 32(1), 2019 참고).

16) 남궁협, 「지역에서 대안적 독립언론 상상하기. 급진적 민주주의와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 『언론과학연구』 18(4), 2018, 36~38쪽.

17) 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 회장, 〈반반미디어〉 고성운 팀장 인터뷰(2021년 3월 17일,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콘텐츠가 차지하게 되었다.

〈반반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대화의 즐거움이다. 최근 새롭게 생겨나는 많은 대안적 미디어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즐거움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즐거움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미디어가 반드시 설득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것만은 아님을 상기시킨다.<sup>18)</sup>

보통 시민 미디어, 대안 미디어라 하면 주류 언론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시각, 일상에 밀착한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고발하거나 저항적인 목소리로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연상된다. 하지만 미디어 활동의 기본 동기는 그 무엇보다 지역에서 사람들을 면대면으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얻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반반미디어〉와 같은 마을 미디어는 친근한 영상과 목소리로 지금까지 미디어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평범한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말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표현의 욕구를 실현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에서 비롯된 ‘공적 행복’<sup>19)</sup>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한나 아렌트는 공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는 만족감, 자신감, 자기 고양의 느낌 등을 공적 행복이라 했다.

〈반반미디어〉 활동을 살펴보면 일견 매우 가벼운 사교 활동, 놀이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감정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 집단의 집합 정서와 집합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집합 정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집합 행동의 불씨

---

느티나무 도서관 지하 반반미디어 사무실).

18) 박춘서, 「부르주아 공공영역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의 제시」, 1998, 『언론과 사회』 22, 1998, 68~69쪽.

19) Hannah Arendt, 홍원표 옮김, 『혁명론』, 한길사, 2007, 220~221쪽.

가 될 수도 있고 여론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즉 개인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평범한 미디어 활동이 축적되다 보면, 어느 날 특정한 계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이미 쌓여 있는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행위를 수행하며 공적인 존재로 변모하기도 한다.

〈반반미디어〉 활동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기란 어렵다. 미디어 제작자들이 마을을 걸어 다니며 만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일상적인 친교 활동으로 보인다. 친교(sociability)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형으로,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사회적 상호작용 그 자체를 목적으로 친교에 참여한다. 즉 여기서의 인격적 관계와 친밀한 대화가 주는 정서 교류의 즐거움, 유희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하지만 이런 친교 행위는 일회적인 즐거움으로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낳거나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기므로 공적인 것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평소에는 일상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처럼 사용되다가도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접화할 때는 정치참여와 공론장의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하기도 한다.<sup>21)</sup> 예를 들어 반송여중 등굣길 문제 해결에서 〈반반미디어〉가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일상적 활동의 누적과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평소의 느낌과 사소한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공론장, ‘감정 공론장’이 형성된다. 근대의 공론장 개념은 이성적, 합리적 의사소통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면서 감정, 느

20) 김덕영, 『현대의 현상학』, 나남출판, 1999, 134~135쪽. 짐멜은 탈개성화, 탈인격화, 획일화 등 자본주의가 초래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과 종교, 사랑, 친교의 영역에 주목했다. 그에게 친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민주주의 사회이자, 다수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완벽한 구현이다(같은 책, 80~89쪽).

21) 한선의 연구는 경남도민일보의 블로그 - ‘깡블’ - 참여자들이 블로그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점차 공적 자아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한선, 「블로그 이용자의 지역 공론장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경남도민일보〉의 메타 블로그 ‘깡블’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4), 2012.)

김, 일상적 의례 등은 공론장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감정이 단순히 이성, 합리성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을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행위로 이끄는 것이 항상 논리적 설득이나 당위적 이유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서서히 누적된 신뢰, 느슨하지만 오래된 유대, 공감 등 감정적인 이유일 때가 많다. 사실 “여론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데는 이성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다.”<sup>22)</sup>

‘공적’, ‘정치적’이라는 말은 거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국가나 관과 연관된,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공적이라는 단어 역시 일상생활의 지평 위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느낌과 감정에 기반을 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추상적인 담론이나 거대한 정치적 이상보다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만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교환하는 대화에서 공론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sup>23)</sup>

집단의 조직 과정을 합리적 선택 이론이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간주하는 이들이 볼 때 감정만큼 불안정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일상의 문화, 우정의 네트워킹, 감정공동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지배-피지배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sup>24)</sup> 그뿐 아니라 정치, 경제, 학계와 관련한 집단들 역시 거창한 정치적 기획이나 전략적인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관통하는 일상의 전 영역에서 사람들은 함께 격분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집합적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여론과 공론장을 만들어낸다.

---

22) Michel Maffesoli, 박정호·신지은 옮김, 『부족의 시대』, 문학동네, 2017, 53쪽.

23) Shirky, 한신, 앞의 논문, 382쪽에서 인용.

24) Michel Maffesoli, 앞의 책, 51~52쪽.

### 3. 생활 정치

#### 1) DIY 시민

반송동 청(소)년들이 마을 미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마을 역사와 마을 미래에 대해 말하고 전달하면서 특별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반송여중 안전한 등갯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과 후배들의 공통의 삶,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도 무시되지 않는 민주적 삶이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투쟁의 과정은 무엇이 싸워서 쟁취해야 할 가치인가를 깊이 각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등갯길이라는 유형의 자산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고,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 지속가능한 삶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자치와 자율의 힘을 포함할 것이다.

학생들은 등갯길의 주인은 학생이고 문제해결의 주체도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년 반 동안 청소년 직접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경험은 이후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치를 대표하는 돈, 진실을 대표하는 언론, 민주주의의 수단이 된 전문가들의 통치. 이 모두가 사라지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날것의 삶이 남았다.<sup>25)</sup>

“대표성을 버린 생활양식”이 바로 아마추어 미디어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반반미디어>의 대안적 성격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

---

25) Andy Merrifield, 박준형 옮김, 『아마추어』, 한빛비즈, 2018, 295쪽.

해줄 매체를 찾는 대신 스스로가 진실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전통적 미디어에서 청(소)년은 취재 대상으로 종종 등장할 뿐, 제작의 주체가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평범한 청(소)년들이 모여 전문가들의 계획에 반대하는 혹은 성인들은 관심 없는 문제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기존의 미디어와 정치의 형식 바깥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기존의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는 문제를 직접 취재하고, 인물을 만난다. 반송의 택배 노동자와 마을건강센터의 활동가를 만나서 택배 노동에 대해, 건강격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 없는 행정으로 오래된 벚나무가 잘려나가 주민들이 녹지와 그늘을 잃게 된 문제를 고발하기도 하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반송에 새로 전입해 온 청년을 만나 환영 파티를 열기도 한다.

과연 이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직업 정치인들의 활동보다 덜 정치적이고 덜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의회 정치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한, 시민을 ‘위한’ 정치일 수는 있어도 시민에 ‘의한’ 정치는 아니라면<sup>26)</sup>, 지역 청년들의 활동은 ‘아마추어적이지만’ 시민에 ‘의한’ 정치에 가까울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이 지역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아마추어 공론장,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을 요청하는 ‘생활정치’, 새로운 사회 가치나 규범을 수평적 합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창출해 가는 “DIY 민주주의”<sup>27)</sup>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미디어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미디어 제작 및 활동은 일종의 자아 교육 프로젝트라 할

---

26) Ivan Illich 외, 신수열 옮김, 『전문가들의 사회』, 사월의책, 2015, 25~27쪽;

Ivan Illich, 허택 옮김,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느린걸음, 2014, 67, 99쪽.

27) 이광석 외, 『사물에 수작 부리기』, 안그라픽스, 2018, 169쪽.

수 있다. 보통 마을 미디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징과 기호, 언어를 이용해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직접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 실천을 통해 시민 의식과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즉 이런 미디어 활동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시민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은 물론, 권력을 생산하는 사회 환경을 재구성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인식하게 한다.<sup>28)</sup> 시민은 단순히 당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는 존재이다.

〈반반미디어〉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와 일상생활, 액티비즘, 문화, 놀이, 노동, 우정의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들이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 무의미한 놀이 그 자체로 보이는 것도 많다. 사실 이들에게 미디어 제작은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이고, 이들의 활동은 공식적 조직 바깥에서 비제도화된 형식으로 진행되고 참여 인원과 연대의 구조는 즉흥적으로 조절된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미디어 활동은 정치, 시민권, 공론장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sup>29)</sup>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아직’ 법적으로 유권자가 되지 못한 상태라는 인식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혹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공론장에 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물적 조건이나 시간적 여유 등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업,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에 내몰려 있어 공론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sup>30)</sup>

28) Chris Atton, James Hamilton, 앞의 책, 119쪽; 백홍진·김세은, 「열려 있는 지역 공간으로서의 시민 미디어: 제천 시민 TV 〈봄〉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2, 2012, 80쪽.

29) 미디어와 시민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희은, 「문화적 시민권과 문화연구의 만남에 대한 모색: 공사 영역의 이분법 극복과 연대의 가능성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18(2), 2010 참고. 이 연구는 문화연구와 미디어, 시민권을 연관시키며 문화적 시민권에 대해 논의하는데, 미디어 제작보다는 미디어 수용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30) 한선의 연구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 블로그 활동을 통해 어떻게 공적 인간으로 변해가

하지만 이 의견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실천을 충분히 포괄해 설명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동을 문화적 실천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들의 활동이 정치와 무관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실천은 일상의 삶에 직립해 있으면서 동시에 정치의 영역과 미묘한 균형을 이룬다. 학업, 진로, 미디어 활동, 놀이, 우정의 영역 등은 이들의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에 걸쳐져 있다. 이들이 비록 전문 지식이나 물질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도, 자기 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공적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 사이에 놓여있는 공통의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 2) 공동 학습

〈반반미디어〉는 마을의 다양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특히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이 아카이브 자료는 근처 학교 교사들의 호응을 얻어서 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반송여중 자유학기제 수업 시간, 다행복학교로 지정된 반송중학교의 경우 는 마을전문가 수업 시간에 〈반반미디어〉를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sup>31)</sup>

---

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 연구는 40~50대가 지역 블로그 활동에 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스펙 쌓기와 알바에 내몰린 20, 30대들이 '나'에 갇혀 있다면, 40, 50대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적 자아로 진화할 잠재력이 많다고 언급한다. 즉 40, 50대는 삶의 이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경제적 안정이 어우러져 공론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한선, 앞의 논문, 375~376쪽). 하버마스 역시 자신의 공론장 논의를 '부르주아 공론장'에 한정시키며 어느 정도 물질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Jürgen Habermas,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4). 하지만 클루게와 벡트는 '대항적 공론장', '프롤레타리아 공론장'이라는 용어로 하버마스의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제 일상생활과 노동의 영역으로 공론장 이론을 확장시켰다 (Stuart Liebman, "On New German Cinema, Art, Enlightenment, and the Public Sphere: An Interview with Alexander Kluge", *October* vol. 46, 1988, pp.41~44).

31) "반송마을 '반반미디어'. '마을의 희망' 걷는 청년들의 '마음비(마을의 읍지를 비추는 미디어)", 부산일보, 2018.04.12.;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 회장. 〈반반〉 고성운 팀장 인

〈반반미디어〉를 제작하는 이들은 대부분 공식 교육 제도 바깥에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와 혹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글쓰기 방법, (온라인) 출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에디팅, 저널리즘에 대한 지식 등을 배우고 획득한다. 이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 혹은 스승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진행되는 배움 실천이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로우테크로 간단하고 손쉽게 만드는 자가 출판물(진zine)을 제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up>32)</sup> 진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은 보통 동료 리뷰를 통해 글쓰기를 배운다. 이는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글쓰기 장르,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는다.<sup>33)</sup> 〈반반미디어〉 제작에서도 이와 같은 동료 리뷰와 동료들 사이의 공동 학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해서 “형에게 배우고” “후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기도 한다.<sup>34)</sup>

그런데 이런 아마추어의 수평적 교육은 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망명을 떠났던 조셉 자코토가 불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학을 가르쳤던 놀라운 교육을 떠올려 보자. 그는 유식한 스승이 무지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설명한다는 기존의 교육학적 전제를 ‘바보 만들기’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코토는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무지한 스승’이고

터뷰(2021년 3월 17일, 느티나무 도서관 지하 반반미디어 사무실).

32) 진은 주로 소책자 정기간행물로 소량으로 값싸게 만들어진 출판물이다. 1920~30년대 영미권에서 SF소설 동호회가 자신들이 쓴 글을 서로 돌려보기 위해 만든 데서 시작했고, 현재 다양한 집단이 이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3) Rosa Reitsamer, Elke Zobl, “Alternative Media Production, Feminism, and Citizenship Practices”, in Matt Ratto, Megan Boler, *DIY Citizenship*, 2014, pp. 335~337.

34) 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 회장, 〈반반미디어〉 고성운 팀장 인터뷰(2021년 3월 17일, 느티나무 도서관 지하 반반미디어 사무실).

이 무지한 스승에 의한 교육을 '보편적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평등한 지적 능력에 기초한 교육과 공동체에 대해 사고하도록 이끈다.<sup>35)</sup> 지금까지 교육은 지능의 불평등 원리를 고수하며 '각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할 것을 가르쳤지만, 이런 주장은 자신의 자리와 맡은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제한적이고 분할적인 명령으로 기성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랑시에르는 이런 명령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모습을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는 시간에서 발견했다. 즉 낮의 노동을 마친 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밤의 시간. 이는 사유하는 자와 노동하는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나누는 기존의 분할에 도전하는 시간이자, 감성적/미학적 전복을 준비하고 잉태하는 시간이다.<sup>36)</sup>

모든 사람의 동등한 지적 능력에 대한 자코토의 주장은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당시 사회에서 쉽게 수용되지 못했는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의심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이 주장은 여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제도 교육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적 실험은 자코토식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1999년 인도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했던 미트라<sup>37)</sup>의 실험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트라는 인도 델리 빈민가의 한 건물 벽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컴퓨터를 설치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게 했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영어를 배운 적도,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던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영어와 컴퓨터를 자기들끼리 가르치고 배웠다.<sup>37)</sup> 이 실험은 교사의 체계적 설명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스스로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영역까지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이

35) Jacques Rancière, 양창렬 옮김, 『무지한 스승』, 궁리, 2016.

36) Jacques Rancière, 안준범 옮김, 『프롤레타리아의 밤』, 문학동네, 2021.

37) "수카타 미트라: 스스로를 교육하는 법에 대한 새로운 실험", TED 강연: "아이들, 흥미 느끼면 혼자서도 학습 잘해요", 전남일보, 2015.01.11.

야기를 인간의 배움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 혹은 최근 유행하는 ‘스스로 학습’ 성공사례로만 읽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된다. 즉 모든 인간이 배움에 대한 의지와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고차원의 지식까지도 습득가능하다는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과 민주적 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8)</sup>

이는 아이들 역시 스스로 배움 실천을 선택하고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참여나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 가시화되지 않았던 어린이와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이 뿌리내리고 있는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생활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 공식적인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자신을 둘러싼 생활세계와 연관된 문제를 인식하고, 대립하는 이해와 가치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와 학교가 기대하는 학생의 정체성과 본분,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학생의 일과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반반미디어>를 제작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런 제한과 틀을 넘어서 있다. 이들은 사회, 혹은 적어도 자기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하고자 한다. 이들의 모습은, 모두가 언론인이 될 수 있고 저널리즘이 어디에서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글쓰기의 민주화 실천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문가나 선생을 따로 두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상호 간

---

38) 이수룡의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참고해 볼 만하다. 이 연구 속에 등장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건물 공사로 운동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복도에 자신들의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박스집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현실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이들은 권력의 생성과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애쓰면서 생활정치의 실천을 해나갔다(이수룡, 「어린이들의 교실 밖 생활정치 현상의 의미: '박스집 만들기'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2019, 1265쪽).

에 전수하며, 동료 리뷰를 거쳐 기사를 작성해 나갔다. 이런 제작 과정에  
분업은 있겠지만, '데스크'와 일반 기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2000년 초 <오마이뉴스>를 시작으로 평범한 사람들 누구라도 기사를 작  
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시민 기자' 모델이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가 급속히 늘어나면  
서 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블로그,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  
서 개인의 주관과 감정을 강하게 드러나는 글쓰기, 댓글 달기, 청와대 국민  
청원 글쓰기, 정치 풍자 패러디 놀이, 미투 이후 흔하게 볼 수 있는 포스트  
잇 글쓰기 등은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탈  
정치화된 개인이 오로지 재미를 위해 하는 일회성 행위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글쓰기가 일상생활과 정치, 문학의 경계를 뒤섞으며  
일종의 '참여문학'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39)</sup>

벤야민은 <주유소>라는 짧은 글에서 자기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새로  
운 생산도구로 전단이나 팜플렛, 포스터 등을 들었는데<sup>40)</sup>, 우리 시대에는  
진, 블로그, 포스트잇 글쓰기, 유튜브 등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할 수 있  
을 것이다. 미디어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실천과 글쓰기가 일치하는  
경우인데,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 지식을 자처하는 까다로운 글보다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적합한 형식의 글들이 발명되어야 할 것이다.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전문 작가와 '누구나'의 간극  
을 제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원고-출판사(언론사)-책(잡지)-서  
점-독자를 따라 생산-유통-분배-소비를 거치는 글쓰기-글읽기의 일방향  
적 경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탐색

39) 신동훈, 「인터넷, 이야기, 그리고 생활정치: 네티즌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학적 고찰」,  
『민족문화사연구』 27, 2005, 310쪽.

40) Walter Benjamin, *Einbahnstraße/Denkbilder*, 최성만, 김영옥, 윤미에 옮김, 『일방  
통행로/사유이미지』, 길, 2007, 49쪽.

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디어 콘텐츠를 더이상 전문성이나 지속성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

#### 4. 느린 속도의 미디어

체감되기 힘들 정도로 빠른 디지털 정보 환경은 순간성, 즉각성, 편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터넷 시스템은 광범위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어떤 지역의 상황이라도 실시간으로 영상화해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쟁이나 테러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그런 이미지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무감각의 일상화가 벌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 선정적인 이미지를 찾을수록 대부분의 미디어는 실시간 속보 경쟁, 선정적인 보도 경쟁에 내몰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대안적 미디어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한 번 읽으면, 한 번 방송되면 벌써 낡은 것이 되고 마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속도의 대안적 미디어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인터넷과 컴퓨터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이 확대되면서 지리적 공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잃고 있다. 마르크 오제는 역사성이나 특이성이 상실된 현대 사회의 장소들, 예컨대 공항과 사무실, 마트와 같은 공간을 '비장소(non-places)'라 부르며 초근대적 조건이 발현되는 공간에 대해 분석했다.<sup>41)</sup> 대표적인 비장소인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는 각 도로가 지니는 역사, 문화, 경관과 조우하지 못하고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한 채 스쳐 지나갈 뿐이다. 비장소에서는 시간의 축적, 관계의 깊어짐,

---

41) Marc Augé, 이상길·이윤영 옮김, 『비장소: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소통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하르트무트 로자는 이를 소외의 문제로 해석한다. 구체적인 인간과 도시, 풍경을 제공하지도 않고, 친밀함이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않으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지도 않는 비장소 속에서 인간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sup>42)</sup>

우리는 속도의 독재에 의해 [...] 세계를 전유하는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 후기 근대의 주체에게 (자아를 포함해) 세계는 침묵하고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불쾌하다. 자아-세계 관계에서 소외에 '상반' 되는 것이 '응답'임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소외형태이다. [...] 근대에 대한 비판적 사회 분석의 '병리' 진단에서 세계의 '말없음', 자아와 세계 관계에서의 '귀먹음'이야말로 가장 집요하고 가장 위험한 문제임을 확신한다.<sup>43)</sup>

미디어가 제공하는 가상공간 역시 현대의 대표적인 비장소이다. 온갖 가십거리 기사와 유명 인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넘쳐나지만 이런 정보들은 사실 우리 삶의 맥락과 연결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보면 당연한 셈이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가 맺는 관계의 종류와 접촉의 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시간을 요구하는 깊은 관계 맺음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처럼 소외의 문제는 사회의 속도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현재 우리는 살아가는 사회는 단지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 타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삶을 전면적으로 변형시킨다. 빠른 속도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성찰,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 상황 속

---

42) Hartmut Rosa, 김태희 옮김, 『소외와 가속』, 앨피, 2020, 119~121쪽.

43) 같은 책, 144, 146쪽.

에서조차 사람들은 사회의 가속화가 초래한 소외의 문제에 대해 성찰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속화가 초래한 결과는 ‘군산복합민주주의’로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은 속도의 질서에 종속된 무명의 병사가 되었다.<sup>44)</sup> 인간의 이성 능력은 거부되고, 행동과 결정의 자유, 구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명령에 대한 복종만 있을 뿐이다. 거의 자동화 단계에 이른 가속화는 저항, 이성, 정치의 영역도 크게 축소시켰다. 그래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들의 침묵하는 다수를 사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sup>45)</sup>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반반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기존의 미디어와 구별 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느린 속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빠르게 업로드 되는 기존의 미디어와 달리 마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속도에 맞춘 논변과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속도가 중첩되어 있는 일상적 삶을 반영하는 데는 더 적합하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부합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듣고 저울질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숙의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또 다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는 속도의 가속화 때문에 의사결정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속도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속도에 저항하는 대안 미디어와 그것이 만드는 대안적 사회의 모습을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44) Paul Virilio, 이재원 옮김, 『속도와 정치』, 그린비, 2004, 225~227쪽.

45) 같은 책, 178, 265, 214쪽.

## 5. 나가며

아마추어, 지역, 청년.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전통적인 미디어 논의에서 거리가 먼 것들이다. 게다가 이 세 개의 키워드는 ‘비주류’,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등의 편견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이처럼 아마추어 지역 청년 미디어의 실질적 경험에는 세대, 지역, 미디어, 지식 격차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며 이는 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문가, 서울, 성인이 주도하는 미디어와 구별되는 아마추어 지역 청년 미디어가 보여주는 미디어 실천의 특징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새로운 미디어는 주관적 보도와 감정 공론장을 특징으로 가지며, 제작 방식 역시 DIY와 공동 학습을 바탕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미디어 실천은 일종의 생활 정치의 실천이자, 사회와 역사의 가속화, 미디어의 스펙터클화에 저항하는 느린 속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미디어의 변화는 대중의 힘과 지성, 사소한 이야기와 미시담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그 궤적을 함께 한다.

새로운 전자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 사회의 인간의 삶,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은 크게 변화하였다. 다루기 용이한 디지털 카메라와 편집 프로그램의 발달은 누구라도 카메라를 들고 자기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과 시공간에 대한 감각도 변화된다. 그런데 현재의 미디어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구체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반응하는 대신 우리 일상과 무관한 내용이나 자극적인 스펙터클로 가득하다. 더 큰 문제는 미디어가 단순히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

하고, 또 이렇게 구성된 현실은 실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의 실재를 구성하는 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현재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기술적 환경 변화, 언론의 신뢰도 추락, 집합 의식 및 집합 정서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와 대안적인 미디어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 지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마을 미디어 활동은 그런 노력 중 하나로, 다양한 보도 형식을 실험하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요청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미디어를 보다 일상생활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근거한 새로운 공론장을 구축하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접합과 경계의 재설정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 연구는 〈반반미디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새로운 문화적 실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마을 미디어 실천을 경험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다. 향후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덕영, 『현대의 현상학』, 나남출판, 1999.
- 남궁협, 「지역에서 대안적 독립언론 상상하기. 급진적 민주주의와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 『언론과학연구』 18(4), 2018.
- Jacques Rancière, *Le Maître Ignorant*, 양창렬 옮김, 『무지한 스승』, 궁리, 2016.
- \_\_\_\_\_, *La nuit des prolétaires*, 안준범 옮김, 『프롤레타리아의 밤』, 문학동네, 2021.
- Hartmut Rosa, *Alienation and Acceleration*, 김태희 옮김, 『소외와 가속』, 앨피, 2020.
- Michel Maffesoli, *Le temps des tribus*, 박정호 · 신지은 옮김, 『부족의 시대』, 문학동네, 2017.
- Andy Merrifield, *The Amateur*, 박준형 옮김, 『아마추어』, 한빛비즈, 2018.
- 박춘서, 「부르주아 공공영역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의 제시」, 『언론과 사회』 22, 1998.
- 백홍진 · 김세은, 「열려 있는 지역 공간으로서의 시민 미디어: 제천 시민 TV <봄>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2, 2012.
- Walter Benjamin, *Einbahnstrabe/Denkbider*, 최성만, 김영옥, 윤미애 옮김, 『일방통행로/사유이미지』, 길, 2007.
- Paul Virilio, *Vitesse et Politique*, 이재원 옮김, 『속도와 정치』, 그린비, 2004.
- 신동훈, 「인터넷, 이야기, 그리고 생활정치: 네티즌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학적 고찰」, 『민족문화사연구』 27, 2005.
- 신지은, 「'해운대인 듯 해운대 아닌 해운대 같은 해운대' 반송동 <희망세상>」,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BDI, 2016.
- Hannah Arendt, *On the Revolution*, 홍원표 옮김, 『혁명론』, 한길사, 2007.
- Chris Atton, *An Alternative Internet*, 민인철 · 반현 옮김, 『얼터너티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Chris Atton, James Hamilton, *Alternative Journalism*, 이효성 옮김, 『대안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Marc Augé, *Non-Lieux*, 이상길 · 이윤영 옮김, 『비장소: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 윤영태, 「시민미디어 개념의 다원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2005.
- 이광석 외, 『사물에 수작 부리기』, 안그라픽스, 2018.
- 이수룡, 「어린이들의 교실 밖 생활정치 현상의 의미: '박스집 만들기' 실천사례를 중심

- 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2019.
- 이효성, 「대안언론과 관련된 비판이론 및 급진 미디어, 시민의 미디어, 토착민보도 개념에 대한 고찰」,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1, 2011.
- 이희은, 「문화적 시민권과 문화연구의 만남에 대한 모색: 공사 영역의 이분법 극복과 연대의 가능성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18(2), 2010.
- Ivan Illich, *The Right to Useful Unemployment*, 허택 옮김,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느린걸음, 2014.
- Ivan Illich 외, *Disabling Professions*, 신수열 옮김, 『전문가들의 사회』, 사월의책, 2015.
- 조정환, 「글쓰기-노동과 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 『문학과 사회』 32(1), 2019.
- Ju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4.
- 한선, 「블로그 이용자의 지역 공론장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경남도민일보〉의 메타 블로그 ‘갱블’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4), 2012.
- Chris Atton, “Alternative Media, the Mundane, and ‘Everyday Citizenship’”, in Matt Ratto, Megan Boler(ed.), *DIY Citizenship*, The MIT Press, 2014.
- Stuart Liebman, “On New German Cinema. Art, Enlightenment, and the Public Sphere: An Interview with Alexander Kluge”, *October* vol. 46, 1988.
- Rosa Reitsamer, Elke Zobl, “Alternative Media Production, Feminism, and Citizenship Practices”, in Matt Ratto, Megan Boler(ed.), *DIY Citizenship*, The MIT Press, 2014.
- 반반미디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anbanmedia/>
- 반반미디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D4ehWND-Op\\_wNGZyxMKJkA](https://www.youtube.com/channel/UCD4ehWND-Op_wNGZyxMKJkA)
- 반반미디어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nbanmedia2>
- 반송스런 청년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1Em22mb8LnLCHutjcFXTlA>
- 청년가치협동조합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value>
- “반송마을 ‘반반미디어’. ‘마을의 희망’ 낚는 청년들의 ‘마음비(마을의 음지를 비추는 미디어)”, 부산일보, 2018.04.1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412000262>
- “2019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 6월 ‘반반미디어’”, 2019.07.07.

<https://blog.naver.com/peterchoi85/221579767494>  
“우리에게 길은 없다. 반송여자중학교 등곳길 대책위 활동 다큐멘터리”,  
유튜브 반송스런 청년들, 2020.02.16.  
<https://www.youtube.com/watch?v=iH4FoJ9G6WA>  
“반송만의 색깔 지키며 좋은 청년공동체로 만들 것”, 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 회장  
인터뷰, 국제신문, 2020.01.1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200114.22024004705>  
“수가타 미트라: 스스로를 교육하는 법에 대한 새로운 실험”, TED 강연.  
[https://www.ted.com/talks/sugata\\_mitra\\_the\\_child\\_driven\\_education?  
language=ko](https://www.ted.com/talks/sugata_mitra_the_child_driven_education?language=ko)  
“아이들, 흥미 느끼면 혼자서도 학습 잘해요”, 전남일보, 2015.01.11.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1501120000004601  
80897](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150112000000460180897)

| Abstract |

## The Social Significance of Amateur Local Youth Media - Focus on <Banban Media>

Shin, Jieun

The research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significance of amateur local youth media, with a focus on <Banban media> which operates in Bongsong, Busan. Amateur local youth media differs in objective, direction and production method from professional, mainstream, adult-centered conventional media. This new type of media has the characteristics of native reporting and emotional appeal rather than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objectivity and neutrality. Their activities help create a new public sphere based on their daily lives and emotions through media. Their media production methods are also based on DIY and collaborative learning, rather than relying on expert authority. Examining this production process, it can be seen that young peopl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existing public forums and political discussions are practicing life politics to discover common problems and concerns with others in their lives and to solve problems on their own. Finally, this new media ha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being slow, which is a sharp contrast to a society that is engaged in a speed race and a media that is becoming a spectacle.

Key Words: community media, emotional public sphere,  
life politics, local, amateur

·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30일 · 심사완료일: 2021년 10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1년 10월 24일

